

一、괄호 안에 알맞은 조사 혹은 어미를 쓰십시오.(1×10=10 점)

1. 창밖에는 며칠 전에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백옥 () 하얀 옷으로 치장하였다.
2. 말하기와 듣기가 중요한 만큼 말을 잘 하고 잘 듣는 것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생활 능력이() 할 수 있다.
3.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 토론해 보았습니까?
4. 아버지는 오랜만에 부자가 오뚱한 밥을 맞고 보니 잠을 이룰 수가 없() 했다.
5. 숲의 여러 가지 효용을 현대화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6. 얼굴에도 면상이 있() 말에도 상이 있다.
7. 용돈을 쓸 만큼 주었()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하는군요.
8. 거의 40년이 넘() 두 가족은 이웃으로 살았다.
9.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 디카는 21 세기의 필기구이다.
10.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는 두 남녀의 모습이 비슷하() 다르다.

二、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1×10=10 점)

1. 도대체 언제까지 날 () 먹일 셈인가요?
① 욕 ② 골탕 ③ 고생 ④ 곤란
2. 우리의 권리를 ()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① 주고 받기 ② 굳어지기 ③ 돌려받기 ④ 침범하기
3. 어느 나라에나 속담에는 참된 교훈이 () 씹을 수록 감미롭고 새로운 맛을 풍긴다.
① 넘어져 있어 ② 관련되어 ③ 녹아 있어 ④ 되어 있어
4. 20대 초반은 () 여러 가지 아름다운 꿈이 많을 때이다.
① 결코 ② 한창 ③ 한참 ④ 앞으로
5. 물과 구름의 ()을 생각하지 않고 분리하여 그 일부분만을 놓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인식을 갖기 어렵다.
① 사회성 ② 전체성 ③ 철학적 ④ 연관성
6. 선생님이 책상 위의 등잔불을 ().
① 밝히다 ② 밝히다 ③ 밝히다 ④ 밝히다
7. 한 학생이 () 나에게 다가왔다.

- ① 힐끔거리며 ② 알랑거리며 ③ 멈칫거리며 ④ 남실거리며
8. 여름에 덥다고 옷통을 벗고 다녔다가 할아버지한테 () 기억은 새롭다.
 ① 힘들다 ② 혼이 나다 ③ 화가 나다 ④ 희롱을 당하다
9. 제비 부부의 애잔한 모습이 지금도 잔상으로 남아서 가끔씩 나를 () 한다.
 ① 쌀쌀하다 ② 서늘하다 ③ 쓸쓸하다 ④ 선선하다
10. 황망중에 아이를 떠나 보낸 아버지는 ()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① 차마 ② 설마 ③ 정말 ④ 아무리

三、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1×10=10 점)

1.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고민을 하니?
 ① 황당한 ② 어려운 ③ 거창한 ④ 중요한
2.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고 망연자실 녀 나간 꼴로 멈춰서 버렸다.
 ① 어리둥절 ② 힘없이 ③ 어이없이 ④ 우두커니
3.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안절부절못하는 그를 보노라니 마음이 아팠다.
 ① 당황하다 ② 허둥대다 ③ 안정되다 ④ 안타깝다
4.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희노애락을 다 겪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① 경험하다 ② 치르다 ③ 당하다 ④ 지내다
5. 나는 그에게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줄처럼 입이 열리지 않았다.
 ① 여간해서는 ② 조금 ③ 여전히 ④ 도대체
6. 아무튼 조만간 직접 만나서 다시 그 문제를 상의합시다.
 ① 곧 ② 머지않아 ③ 언제 ④ 일찍
7. 감독은 선수들의 사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선수들을 격려했다.
 ① 충천하다 ② 하강하다 ③ 침전되다 ④ 떨어지다
8. 그는 음식 배달원을 칭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다.
 ① 말하고 ② 부르고 ③ 가장하고 ④ 이르고
9.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속담처럼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그만큼 실패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랴 ②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다
 ③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④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
10. 그 천막은 너무 헐어서 쓸 수가 없다.
 ① 나쁘다 ② 오래되다 ③ 낡다 ④ 무너지다

四、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2×5=10 점)

1. 그는 참다 참다가 _____
2.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_____
3.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_____
4.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_____
5. 인생을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_____

五、 다음 속담들의 뜻을 한국어로 해석해 보십시오.(2×5=10 점)

1.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_____
2. 소 닭 보듯이 한다. _____
3.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_____
4.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_____
5. 고생 끝에 낙이 온다. _____

六、 다음을 이용하여 짧은 문장을 지으십시오.(2×5=10 점)

1. 몸에 익다 _____
2. -에 지나지 않다 _____
3. -르/을 경우 _____
4. -르/을 텐데 _____
5. 되새기다 _____

七、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 점)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을 [], 나랏님(임금)과 똑같은 분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A) 스승은 단지 제자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전해 주고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다. 사람() 세상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살아 가는 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 한글자의 지식이나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정신을 일깨워 주는 것을 스승의 할 일로 여겼다. (B) [] 아는 것이 많고 뛰어난 재주가 있()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C)

(D) 한 인간을 올바른 사람으로 이끄시는 스승이기에 그분의 그림자()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조심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말도 있다.

